

종합·해설

격의없는 대화… 단일화 시기 등 일사천리

문·안 단일화 협상 막전막후

후보 단일화 7개 합의 사항

- ① 정치혁신 국민 요구에 인식 공유
- ② 정권교체 위해 기득권 내려놓는다
- ③ 새누리당 집권연장 반대 국민의 뜻 모으자
- ④ 유·불리 따지지 않고 단일화 추진
- ⑤ 단일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에 결정
- ⑥ '새정치 공동선언' 위한 실무팀 구성
- ⑦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·캠페인 공동 추진



손잡은 文·安

민주통합당 문재인,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기 위해 앞서 악수하고 있다.

/연합뉴스

며 발표했다.

◇회동 장소 풍경=이날 두 후보

간 회동에는 언론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백범기념관 안팎에 1000여명이 몰려들었다. 회동장소에는 안 후보가 먼저 도착했다. 안 후보는 조광희 비서실장, 유민영·정연순 대변인과 함께 5시52분께 회동장 소로 들어가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.

이어 문 후보가 1분 차이로 회동장소에 도착했다. 문 후보 측에서는 노

민영 비서실장과 박광온·진성준·진

선미 대변인이 동행했다.

단독회담 직전 인사말에서는 문 후보는 “안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그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백범기념관을 떠났다. 합의문은 양측 대변인들이 한 개씩 번갈아가

바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”며 “자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꼭 단일화돼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”고 말했다.

이어 안 후보는 “오늘 만남이 민생을 살피는 새로운 정치의 첫걸음이 되고자 노력하겠다”며 “새로운 정치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후 두 후보는 배석자 없이 회담했다.

◇제안에서 회동까지=두 후보 간

이날 회동은 안 후보의 제안 이후 불과 27시간 10분 만에 전광석화처럼

이뤄져 양 캠프는 괴 말리는 순간순

간을 보내야 했다.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전남대 강연 중이던 지난 5일 오후 2시50분께였다. 문 후보 측은 그동안 단일화 논의에 수세적이었던 안 후보로부터 그야말로 ‘기습공격’을 당한 셈이었다.

이어 30분도 지나지 않아 안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이 문 후보 측 노민영 비서실장과 통화하고, 회동 일시를 바로 다음날로 잡았다.

지난 5일 종교 단체 예방 직후 안 후보의 회동 제의 사실을 보고받은 문 후보는 이미 약속된 중진의원과의 만찬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귀가, 회동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안 후보도 호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곧장 귀가, 다음날 오전까지 용산자택에서 공동선대본부장 3명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며 회동 준비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.

◇긴박했던 양 캠프=회동을 앞두고 양측 캠프는 긴박하게 움직였다. 각 캠프는 협상 전략을 짜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후보 간 회동에서 논의될 의제를 놓고 기선 제압을 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. 문 후보 측은 단일화 방법과 시기로 회동의 제로 삼으려 했고 안 후보 측은 ‘원칙에 대한 합의’를 내세우며 단일화 방법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국민만평

- 김종우



그 실력으로 TV토론 하면 좀 좋아

단일화, 세력통합이냐 국민연대냐

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양측간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양측은 2002년 대선 당시 두 후보 간 인물연대를 뛰어넘어 가치와 철학의 연대가 꽤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.

문 후보는 이미 세력 간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단일화 이후 협력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안 후보도 지난 5일 전남대 강연에서 국민연대라는 표현을 통해 연대·연합론의 문을 띠운 상태다.

현재 안 후보 측은 국민연대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. 그러나 정치권은

에서는 안 후보 측이 민주당 입장과 정책연합을 고리로 한 세력 간 연대 및 공동정부 구성, 민주당을 포함한 신당 창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다.

캠프 안팎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입당설이나 대선 이후 신당 창당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.

반면, 민주당 측은 안 후보의 입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.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고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경우가 오더라도 불립정당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.

그러나 안 후보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다. 일

각에서는 양측이 신당 창당에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. 안 후보가 대선 이후 자신의 세력을 모아 가설정당 형태의 정당을 만들고 민주당과 당 대 당 통합을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양측의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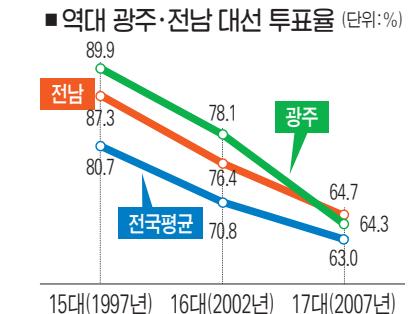
그러나 안 후보 측이 지나친 정치 공학적이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. 이 때문에 안 후보가 국민 후보론으로 대선을 돌파한 뒤 민주당의 일부 세력을 자신의 세력과 결합시키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.

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광주·전남 투표율

80% 넘으면野승리

■ 역대 투표율 분석



호남 민심의 흐름이 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·전남 지역 투표율이 주목되고 있다. 역대 대선에서 광주·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광주·전남 지역 대선 투표율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.

◇역대 투표율 80%대면 야당 후보 승리=선관위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 광주 지역 투표율은 89.9%(전국 평균 80.7%)로 전국 16개 시·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. 전남 지역 투표율도 87.3%였다. 당시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40.30%의 득표율로, 38.74%의 득표율을 올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.

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에도 광주 지역 투표율은 78.1%(전국 평균 70.8%)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전남은 76.4%의 투표율을 보였다. 선거결과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48.91%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.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46.58%의 득표율로 2%포인트 차이로 두 차례 대선에서 고배를 머셨다.

그러나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의 경우 광주·전남 지역 투표율은 각각 64.3%, 64.7%로 전국 5, 6위를 기록하며 투표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. 그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8.67%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, 야당 후보였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6.14%의 득표율에 그쳤다.

정치권에서는 15대·16대 두 차례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여당 후보를 누른 것은 호남의 익집성이 투표율에 이어지면서 야당의 승리를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

◇투표율 저조는 민주당에 '독'(毒)=광주·전남 지역 투표율은 2000년 이후 전국 평균을 밟도록 추세다. 2008년 18대 총선 광주 지역 투표율은 42.4%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, 지난 4·11 총선에서의 광주시 투표율은 52.7%로 7대 도시 중 5위를 차지했다.

이처럼 광주 지역 투표율이 저조한

우암학원 장학 63주년

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
남부대학교
(062) 970-0114
꿈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
전남과학대학교
(061) 360-5050

호남을 대표하는 여행브랜드

조이 투어
JOY TOUR CO.,LTD

대표전화.(062) 234-3222

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2-151-1번지 FAX (062) 234-3141

일본 가족과 함께 카멜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 즐기기!!

실 속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일본 고급펜션 4일 ₩299,000

불포함: 유류 할증료, 국내(광주-부산) 수송, 선내 식사 출발일: 11/26, 12/05

★ 규슈 구중산, 유후다케 가을 단풍여행 4일 ₩329,000

불포함: 유류 할증료, 국내(광주-부산) 수송, 선내 식사 출발일: 11/26, 12/05

품 격 일본 전통료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기 4일 ₩429,000

불포함: 유류 할증료, 국내(광주-부산) 수송, 선내 식사 출발일: 11/26

★ 나가사키, 유럽풍의 하우스텔로스 4일 ₩519,000

불포함: 기사&기아드팀(₩20,000), 국내(광주-부산) 수송, 중식 1회

★ 규슈 자유여행 (선박+호텔2박) ₩199,000~

불포함: 유류 할증료, 선내식사, 부두세비도 출발일: 11/26

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즐기기~~!!

실 속 오사카, 교토, 나라 3일 ₩699,000

불포함: 국내(광주-부산) 수송, 기사&기아드팀

품 격 오사카, 교토, 오카야마 4일 ₩999,000

불포함: 국내(광주-부산) 수송, 기사&기아드팀

대표이사 최 금 환
<http://www.joy2000.kr>
(현금영수증 발행 가능)무안에서 떠나는 태국여행
(12/27~2/25 총 16회)

관광

골프 54H

무제한 라운딩

관광

골프

방콕/파타야 3박5일 ₩849,000~

불포함: 유류 할증료(150,000), 가이드&기사 팀(\$40), 진통카, 도착일 석식, 클럽 중식, 캐디팀(300바트/18홀 1인기준)

방콕/파타야 3박5일 ₩1,299,000~

불포함: 유류 할증료(150,000), 진통카, 캐디팀(300바트(18홀/1인), 캐디팀 200바트(18홀/1인), 미팅&샌딩비, 세탁비(50바트/1일)

방콕/파타야 3박5일 ₩899,000~

불포함: 유류 할증료(150,000), 진통카, 캐디팀(300바트(18홀/1인), 캐디팀 200바트(18홀/1인), 미팅&샌딩비, 세탁비(50바트/1일)

마카오/홍콩(심천) 2박4일 ₩849,000~

마카오/홍콩(심천) 2박4일 ₩1,049,000~

마카오/홍콩/심천 3박5일 ₩999,000~

마카오/홍콩(베네시아) 3박5일 ₩1,299,000~

마카오/주해 2박 4일 ₩1,399,000~

마카오/주해 3박 5일 ₩1,549,000~

중국



★ 무안-상해 황산(산아래) 3박4일 ₩749,000~

11/21 출발 확정 // ALL 포함

★ 무안-상해장기 4일 ₩1,069,000~

★ 무안-상해/장기/주각 5일 ₩1,199,000~

★ 무안-북경 4일 ₩499,000~

★ 무안 북경 5일 ₩569,000~

불포함: 개인경비, 중국단체비자, 유류 할증료

유럽여행

★ [호쇼핑방영] 친퀘테레/시에나/베네치아 이탈리아 완전 일주 서유럽 4개국 8일 ₩1,290,000~

★ [호쇼핑방영] 친퀘테레/시에나/베네치아/나폴리 이탈리아 완전 일주 서유럽 4개국 9일 ₩1,390,000~